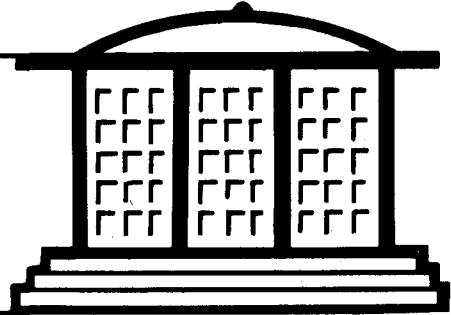


소식 기관단체



■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구성

- 초대회장에 전동용회장 선출 -



전동용 회장

3월25일 축산관련단체 회장들은 오전 8시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전문10조 부칙으로 구성된 회칙을 통과시켜 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축산 및 관련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축산 및 관련단체간의 공동관심사의 협의를 통한 상호협력과 유대를 도모하며 축산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탄생된 협의회, 초대 회장에는 대한양돈협회 전동용 회장이 선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한국육가공협회가 참석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 수입개방 움직임에 대한 대정부 견의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 농촌진흥청 인사이동



김강식 차장

농촌진흥청은 김강식 전축산시험장을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승진발령한데에 이어 지난 3월24일 설동섭 전 가축위생연구소장을 축산시험장장으로 전보발령했으며, 박근식 전검정화학과장은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승진



설동섭 장장



박근식 소장



남궁선 과장



김상희 과장

발령하는 한편 25일에는 계역과장 남궁선박사를 검정회학과장으로 발령하고 신임 계역과장에는 김상희씨를 발령했다.

〈프로필〉

◇ 김강식 신임 농진청차장

신임 김강식 농진청차장은 업무에 치밀하고 차분한 성격의 선비형으로 항상 직원들을 아껴주는 인정이 풍부하다.

56년 서울대농대 축산과를 거쳐 58년 일본대 농대에서 농학박사학위 취득후 62년 축산시험장 축산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줄곧 한국형 축산개발연구에 몰두해온 축산정통파이다.

축산국장 재임중에는 도계파동을 원만히 해결하고 사료공장 시설 근대화를 이룩하는 등 놀라운 행정력을 발휘하였고 축산시험장의 연구발표에 양축기를 초청하고 가금과를 신설하는 등 양계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소 맡은바 업무를 치밀하고 차분히 끝맺는 성격의 김차장은 전남 장성출신으로 △축산시험장 영양생리과장 △농촌진흥청 시험국 제2연구조정관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장 등을 역임해 왔다.

◇ 박근식 신임 가축위생연구소장

신임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장은 경북 청도출신으로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경농업대학에서 뉴캐슬에 대한 연구로 농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연구요원을 시발로 오로지 닭질병만을 다루어온 가금질병의 정통파로써 계역과 연구관 및 계역과장으로 오랜동안 거치면서 양계업계와 불가분의 깊은 관계를 가져온 양계인이다.

박소장은 한국가금학회 상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동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가금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세계가금 질병분야에 널리 알려진 닭질병전문가이기도 하다.

본회 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한 바도 있으며 1978년 12월에는 양계협회에서 선정한 가금위생부문의 「양계산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본회 자문위원회 겸 검정위원으로 양축가 지방순회 질병 간담회시 매번 참여하여 닭질병관계에 대한 양계농가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등 우리 양계인들에게는 친숙한 분으로 전국 양계인들의 기대가 자못 크다하겠다.

■ 전국양계인단합대회 질의회신

농림수산부는 전국양계인대회장 이름으로 질의한 양계산업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입장을 회신하여 왔다.

◇ 양계산업에 대한 기본정책은?

○ 양계산업의 기본 정책

- 양계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보장
- 양계농가의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화 억제를 위한 등록제 실시
- 양계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경영 개선
- 양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으로 생산자 보호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후의 쇠고기 수입여부?

- 쇠고기의 수입은 양축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축과 협상중에 있음

◇ 쇠고기의 무제한 수매비축 방출시 양계산물 및 돼지고기 소비 위축으로 인한 양돈·양계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 수매비축 쇠고기를 방출시에는 국내 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절 방출하여 국내 양축농가를 보호할 것임

◇ 수입감시제도의 해제여부와 해제시 계란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은?

- 수입감시제도는 금년말로 해제할 계획이나 계란의 수입은 국내 양계업계에 영향을 크게 주는 품목만이라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임

◇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우량종계 보급과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도입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인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축산물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감면조치 내용은?

- 사료용 원료는 할당관세로서 사료곡물은 7%에서 5%로 대두 등 기타는 10~20%에서 7%로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료원료의 관세인하와 배합사료의 부가세 면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개방과 국내산 원료의 2중 가격제 실시 및 자가 배합사료공장 허가에 대한 정책방향은?

- 배합사료 원료는 저정량의 수입으로 국내 농업과의 조화를 이루워야 하며 수입자유화시는 국내 농

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완전 수입자유화는 어려운 실정임. 다만 국내 농업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주는 강피류 등 일부 품목은 수입개방 하였음

○ 국내산원료의 2종국가제 실시는 국가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등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자가 배합사료공장 허가는 도입사료 원료와 관련 되므로 사료원료의 수입자유화시 검토할 방침임

◇ 농축협의 민주적인 법개정시기는?

○ 축협조합장의 직선제추진 등 축협법의 개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임

◇ 수입개방을 대비한 양축농가의 보호대책은?

○ 국제적으로 수입개방 압력이 기증되고 있으나 국내 양축가보호를 위하여 수입개방을 최대한 억제 할 계획이며, 한편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사업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계란집 하장설치, 계열화 생산사업 추진,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인하등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갈 계획임.

■ 소득표준율 대폭인하

국세청은 제2의 세율이라고 불리워지는 소득표준율을 채란양계의 경우 20%나 대폭인하 조정발표하였다.

채란계의 경우 지금까지 기본율이 9%이던 것이 7.2%로 인하조정 됨으로써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장을 하지않는 경우에 인하된만큼 절세의 혜택을 입게 되었고 기장하는 경우에도 기본율이 대폭인하로 세무기장이 편리하게 되었다.

지난해 육계가 20% 인하된데 뒤이어 금년에 채란계도 인하됨으로써 양계업은 7.2%로 기본율이 정해졌다.

협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소득표준율을 인하하여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 전환기의 농업·농민문제 강좌개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소장 이우재)에서는 오는 4월25일부터 5월23일까지(매주 월·목요일 19시에서 21시30분까지) 동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2회 전환기의 한국농업·농민문제」에 대한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의 농민·농민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재인식과 농업·농민문제의 실천적 해결전망을 하게될 이번 강좌의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날(4월25일, 월)

농업·농민문제의 구조 유인호(중앙대 교수, 경제학)
둘째날(4월28일, 목)

미국과 한국농업 권영근(본연구소 연구위원, 전국대 강사)

세째날(5월2일, 월)

독점자본과 한국농업 김성훈(중앙대 교수, 농업 경제학)

네째날(5월5일, 목)

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정영일(서울대 교수, 경제학)

다섯째날(5월9일, 월)

농업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원석(단국대 교수, 농업 경제학)

여섯째날(5월12일, 목)

농민에 대한 문화적 지배와 대응·문병란(시인)

일곱째날(5월16일, 월)

농촌의 계급구성과 동향⋯⋯ 박진도(충남대 교수, 농업경 제학)

여덟째날(5월19일, 목)

토지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 장상한(본연구소이사, 숭실대 강사)

아홉째날(5월23일, 월)

농민운동의 현황과 전망⋯⋯ 노금노(전국농민협회 사무국장)

특강: 수입개방 의료보험 수세⋯⋯ 본 연구소

이번 강좌의 수강료는 2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연구소(전화 312-1606)로 문의하기 바람.

■ 대미 곡물구매사절단 파견

- 박찬궁 사료협회장 등 10명 -



박찬궁 단장

농림수산부는 박찬궁 사료협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곡물구매사절단을 지난 3월20일 미국에 파견, 사료용 및 공업용 옥수수와 콩 등 1백만톤의 곡물을 현지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김춘배 축협부회장을 비롯 사료 옥수수 및 대두가공 업계 대표 10여명으로 구성된 대미 곡물구매사절단은 미국현지 구매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역조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이와 아

● 기관·단체소식

울려 미측의 쇠고기수입 개방요구는 미국의 대한국 사료곡물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의 조야에 홍보, 우리나라에 대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파견된 민간인 구매사절단은 옥수수반과 대두반으로 각각 나뉘어 각반별로 3~4개주의 주산지 역과 워싱턴을 순회하면서 옥수수·대두 등 곡물을 현지에서 구매하고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업현황과 농축신물에 대한 수입개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미측의 이해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한편 옥수수 소맥 대두 등 주요곡물의 우리나라 대미수입규모는 86년도 6억4천만달러(전체 수입액의 61.5%)에서 87년도에는 8억4천8백만달러(전체 수입액의 76.6%)로 증가되었는데 이번 미국현지 구매에서는 옥수수 콩 등 1백만톤 범위안에서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매사절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단장-박찬궁 한국사료협회장

△ 옥수수반-김춘배 축협중앙회부회장, 차두홍 한일사료회장, 이종근 선일포도당 전무, 안종근 한국옥수수가공협회업무차장, 강기주 축협중앙회구매과장, 신석환 한국사료구매담당

△ 대두반-신명수 동방유량사장, 김정순 제일제당 부사장, 이병성 삼양유지사료사장

■ 계란집하장 부지선정

- 생산자 보호위해 광주·용인 2곳에 -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조합장 강희구)은 지난 3월 15일 오전11시 조합회의실에서 3월 정례이사회를 개최하고 광주·용인지역 계란집하장을 설치에 따른 경과보고와 난가하락에 관한 중점적인 협의를 가졌다.

이에따라 동조합은 계란유통개선과 생산자보호를 위해 광주·용인 2곳에 계란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조합은 이를위해 이미 농림수산부로부터 양계유통자금 3억원을 지원받아 광주와 용인 신갈부근에 계란집하장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에 착수했다.

오는 9월완공을 목표로 설치될 이 계란집하장 설치는 그동안 조악한 계란유통으로 인한 생산자들의 피해가 심해 많은 양계인들이 안정적인 계란유통을 기대해 왔던 바 수도권 계란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단체소식

■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총회개최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용태)이 지난 3월 17일 동조합 사무실에서 17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용태이사장은 경과보고 및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회원사들의 관심 어린 협조로 우리의 숙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어려운 난제들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의안건으로 88년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 등 5천 6백75만원의 1년예산승인을 받았다.

■ 제57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제57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위원장 박근식)가 지난 3월30일 오후2시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가축전염병예방접종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타현안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 위배사료 조치결과 통보

부산직할시 농정과에서는 '88. 1/4분기중에 실시한 사료검사결과 위배된 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 위배사료 조치내역

공장명	시료명	상분등록번호	제조일	검사일	위반내역			과징금부과내용	
					등록	성분	보증표	일시	금액
한성기업 (준성회)	어풀	15-1	88.1.30	88.	수분	수분	위반내용	3분	30,000원
	상풀		88.1.22	3.5	12%	10%	위반내용		
			88.2.6		이하	이하	위표시		

■ 농협중앙회 회장에 한호선씨 선임

공석중이던 농협중앙회장에 한호선 전 부회장이 승진발령돼 지난 3월24일 농협본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한회장은 종합농협의 발족과 함께 공채 1기로 농협에 발을 디딘 순수 농협인으로서 강원도 양주군 농협서기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오직 농협만을 외길로 걸어온 한회장에게 바라는바 최근 전환기의 농협을 농민이 바라고 있는 민주농협으로의 그의 모든 역량이 발휘되어 이끌어줄 것을 2백만 농민조합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 기관 · 단체소식

■ 축협, 사료기술상담실 운영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 사료검사소에서는 지난 3월 7일부터 사료기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료검사소는 사료검정업무와 관련하여 사료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업무도 동시에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동검사소에서는 국내 축산관계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단체, 기관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사료기술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1. 상담실 개시일자 : 1988. 3. 7.
2. 상담방법 : 전화, 서면 및 방문 상담
3. 상담내용
 - 가, 사료분석법에 관한 사항
 - 나, 원료의 규격 및 검수방법에 관한 사항
 - 다, 분석기계장치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라, 분석설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상담장소 : 검사과
5. 상담자 : 검정담당 책임자 및 분석담당 기사

■ 돼지오제스키병 검사의무화

- 농림수산부 방역실시요령 고시 -

농림수산부는 지난 3월 4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을 고시하였다.

이를위해 농림수산부는 등록된 종돈장의 돼지와 등록 또는 혀가받은 양돈장의 돼지, 기타 검사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에 대해 돼지오제스키병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종돈장에 대한 검사는 매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고 기타 양돈장에 대해서는 발생이 의심되거나 검사필요성이 있을때 실시토록 했다. 또한 수입종 돈에 대

한 사후관리로서 수입종돈은 입식양돈장에서 3개월간 별도의 돈사에서 격리 사육한후 수시임상검사와 종료시 혈청검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 양돈협, 돈육요리연구소 설치운영

- 양돈농가의 생산기반 확보위해 -

양돈인 주도의 돼지고기 소비홍보가 한층 강화되어 4월중으로 돈육요리연구소가 설치된다.

이를위해 최근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는 양돈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잠재능력개발, 그리고 돈육의 지속적인 수요유지와 새수요창출을 위한 생산자 주도의 자조적 소비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아래 돈육연구소를 설치키로 했다.

돈육에 대한 소비자교육 및 이해증진과 새로운 돈육의 요리개발 및 보급, 돈육소비홍보사업의 전문화 유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돈육요리연구소는 양돈회관 2층에 설치되며 연구소장에 학계권위자를, 연구위원에 요리연구가 및 학계권위자를 위촉하는 한편 식품영양학 전공자를 보조연구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은 3월15일자로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는 최근 환절기를 맞이하여 돼지콜레라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서 발생, 양돈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고,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더욱 크게 퍼질것을 우려한데에 따른 것이다.

“법정전염병인 추백리를 퇴치하자”
「추백리진단액」 구입문의는
본회 지도조사부 ☎ 752-3571~2